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4화		

4. 다른 길

“부인, 미안하오.”

인혁의 말에 주명은 고개를 떨궜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요즈음 인혁의 말과 행동이 전과 다름을 느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꼭 그러셔야 하나요?”

주명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니 내가 원망스러울 것이오. 허나 부디 이해해 주시오.”

주명은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심장이 얼얼했다.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주명은 애를 썼다.

“서방님 뜻에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인혁을 보는 주명의 눈망울이 애잔했다. 인혁은 그 눈에 그만 꺼냈던 말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핏기를 잃은 창백한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더욱 그윽하게 돋보이고 슬픔을 담은 표정이 고혹적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어요.”

“알겠소.”

일어서던 주명이 휘청거리자 인혁이 다급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부부의 연을 맺고 밤을 보내면서도 평소에 이렇듯 가까이, 손을 마주잡은 적은 처음이었다. 인혁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에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주명은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아씨, 무슨 일이세요?”

뒤따라온 업동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주명은 업동을 쳐다보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서방님이... ”

차마 말을 못하고 주명은 업동의 무릎에 엎어져 흐느끼기 시작했다.

**

커다란 고목을 등지고 선 전봉준의 자태에는 기백이 흘렀다. 무장현의 동음치면 구수내 너른 평지에는 사기가 충천한 4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 있었다. 이 외에 동학의 비밀조직을 통하여 태인 접주 최경선이 3백여 명의 농민군을 조직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고부에서 1천여 명의 농민군이 동원되기로 되어 있었다. 장두 전봉준은 앞에 모인 동학농민군을 천천히 둘러보고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인혁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대한 폭풍이 곧 시작될 것 같은 두근거림이었다.

처가에서 돌아온 후에도 인혁은 계속 고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로 부임한 군수 박원명은 동학군에게 호의적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동학군과 고부 시정을 의논하려 한다고 했고 조정에서 동학군들의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 농사짓고 편히 살 것을 허용한다며 회유했다. 조병갑이 수탈한 양곡도 되돌려 주고 봉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신임 군수의 약속에 전봉준과 동학 접주들은 해산을 결정했다. 그렇게 고부 상황이 안정되는 듯해서 인혁과 주명은 봉서마을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부터 어이없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임 군수의 학정과 봉기 사건을 조사하

러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는 제2의 조병갑, 아니 그 보다 심한 탐관오리였다. 그는 고부군민의 민심을 다독이라는 조정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드러냈다. 봉기 주동자를 찾아내겠다는 핑계로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며 죄 없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행패를 저질렀다. 난을 일으킨 동학교도들은 반역자라 하며 무고한 농민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체포하고 재산을 빼앗았다. 서울과 감영에서 온 포교들도 이용태를 믿고 백성들을 상대로 재물을 갈취하고 심지어 부녀자들을 겁탈했다. 동학도의 집이라며 불을 질러 마을들이 불길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봉준의 집도 그 중의 하나였고 그는 집을 떠나 추적을 피해 은신해야 했다. 이 모든 소식에 인혁은 치를 떨었다.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그는 은밀히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전봉준이 무장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부에서부터 전봉준은 인혁에게 새로운 생각을 눈뜨게 해주었다. 방 안에서 볼 수 없었던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전봉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인혁은 양반입네 하며 안주하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인혁은 주저하지 않고 무장에 와 있는 것이다.

"군신과 부자 사이의 인륜은 그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강직하며, 어버이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를 한 이후에야 나라가 성립되고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전봉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좌중은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다. 포고문을 말하는 동안 자리를 이탈하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멀리서 전봉준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포고문이 적힌 종이를 받아 읽었다.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정승 이하부터 관찰사와 수령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집안을 윤택하게 할 생각에만 골몰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통로를 재물이 생기는 길로 생각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되었다. 나라의 많은 재화와 물건들이 나라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다."

관료들의 수탈과 괴롭힘을 당하던 장본인들이기에 전봉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들이 많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바, 근본이 쇠약해지면 나라도 쇠약해진다."

이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전봉준은 연설의 마무리에 더욱 힘을 주었다.

"우리는 초야에서 사는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므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8도가 한마음으로 수많은 백성과 의논하여 오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상황이 비록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 다함께 태평한 세월이 오기를 기원하며, 모두 임금의 덕화를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노라."

동학농민군의 우렁찬 함성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들판을 스쳐갔다.

**

인혁은 무장에서의 일을 떠올리자 다시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장 백산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주명을 아직 낯선 봉서마을에 남기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처가에서 지내는 동안 인혁은 장인장모와 아내의 사이를 눈치 챌 수 있었다. 송참봉 부부는 사위인 인혁만 신경 쓸 뿐, 오랜만에 본 딸 주명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자애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은 주학에게만 향해 있었다. 혼인 전 주명이 어떻게 지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인혁은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후 주명이 무척 걱정이 됐다. 조금 전 주명의 반응은 그 걱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혁은 잠시 주학을 떠올렸다. 그는 지금 어찌하고 있을까? 과거시험이 희망 찬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가 믿는 것은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까?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가? 불의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출세를 꿈꾸고 누군가는 혁명을 꿈꾼다. 쇠락한 가문을 일으키고자 과거시험에 목을 매는 주학과,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한 채 목숨을 건 길로 나서려는 인혁은 이제 인생의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

주학은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성균관 유생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세도가들이 드나든다는 기방

에도 기웃거리고 알음알음 연줄을 동원해 보았으나 과거시험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다. 인혁이 과거 비용을 마련해 주었다 해도 시험장에 동행할 선접꾼이나 사수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이러다가는 입장조차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주학은 고부에서 특별했던 자신이 한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쇠락한 양반가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그런 가운데 주학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전라도 뿐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과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에 심란하기만 했다.

그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면 자주 사대문 안 운종가를 거닐었다. 병자년(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 조정은 일본과 청나라에 각각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후 임오년(1882년)부터 몇 년간 미국, 청, 영국, 독일, 러시아, 불란서 등에 문호를 개방한 한양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시전 좌판의 시계, 거울, 담배, 성냥, 화려한 그릇 등 신기한 외국 물건과 외국 음식들은 주학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거리를 다니는 외국인의 모습도 신기하기만 했다. 주학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그 변화의 물결을 올라타려면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권력은 금기를 깰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리라. 전라 감사 김문현에게 굽신거림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심지어 잔악하다고 소문이 난 이용태의 손이라도 잡을 것이라며 주학은 이를 악물었다.

운종가의 어느 한 시전 좌판 앞에서 주학은 멈춰 섰다. 햇빛을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는 거울이었다. 예쁜 손잡이가 달린 손바닥 보다 작은 거울을 보며 주학은 주명을 떠올렸다. 동생의 웃는 얼굴에 이어 또 하나의 말간 얼굴이 생각나서 주학은 고개를 저어 떨쳐버렸다.

**

갑작스런 선언이었다. 인혁은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군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부패한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난세에 혼자만 편히 방안에 앉아 풍족하게 지낼 수 없다고 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했다. 주명은 동학이 무엇인지,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인혁의 진심을 느꼈다.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그를 향한 존경심 보다 걱정이 앞섰다. 분명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번 보았던 농민군의 죽창과 포교들의 몽둥이가 떠올라 주명은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어도 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집 안을 잘 부탁드리오. 자주 연락하고 들리리다.”

주명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를 잃고는 살아갈 자신이 없을 뿐이었다.

업동은 흐느끼는 주명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나 언니처럼 업동을 보살펴주던 주명이 어린아이가 된 듯 업동의 치마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씨를 잘 부탁한다. 너라면 아씨를 잘 지켜줄 거라 믿으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어디 가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니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지.”

고부에서 인혁은 업동에게 말했다. 별채 마당에서 칼춤을 추던 업동은 인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발견했다. 놀란 업동에게 인혁은 오히려 혼을 내기 보다 어디서 배운 것인지 물었다. 업동은 인혁의 인자한 태도에 그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고부에서부터 고마운 서당 훈장님께 심부름을 오갈 때마다 글과 칼춤을 배웠다는 것을 말했다. 인혁은 업동이 자신과 주명을 지키기 위해 몸을 단련했다는 말에 칭찬했다. 주명을 위하는 마음이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할 때의 인혁은 진심으로 주명을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업동은 혹시 서방님도 아씨를? 싶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아씨, 진지도 안 드시고 이렇게 울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달래보아도 소용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어느 여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감추던 마음이었기에 주명은 지금 더욱 아프고 힘든 것이다. 언

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무너진 듯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을 흐느끼던 주명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맥없이 멍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업동아, 난 어떡하면 좋을까?"
붉게 충혈된 눈을 비로소 업동에게 향하며 주명이 물었다.
"서방님 없이 어떻게 살지?"
"아씨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바보같이... 왜 말리지도 못했을까. 가시면 안 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사내가 뜻을 품었는데 아내가 돼서 어떻게 말려."
"그럼 같이 가시던가."
주명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업동은 또 생각보다 먼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업동의 말이 오늘은 거슬리지 않았다. 아니 저지르고 보는 그녀의 성격이 부러웠다.
"서방님께 왜 말씀을 못하세요? 좋아한다고?"
"그야... 부끄럽잖아."
"남도 아니고 서방님인데 좋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걸 왜 부끄러워하세요?"
주명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당연한 것. 부부사이에 당연히 말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한 혼인이었기에 생각 못했다. 다른 가문의 다른 부부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좋아한다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사이인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 말을 하는 업동의 얼굴에 슬픔이 드리워졌다. 주명은 자신이 어리광을 부린 것임을 알았다. 업동에게는 부끄러워서 좋아한다고 말 못하는 게 사치인 것이다. 주명은 벌떡 일어섰다.